

한화, 분식회계 관련자 소환 예정!

검찰, 소환 대상 임직원 선별작업 착수 ... 삼각 순환매입 경위 조사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가 2003년 2월25일 참여연대의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과 관련해 한화그룹 임직원에 대한 소환 대상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주식회사 한화와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등 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주식을 사주는 방식의 <삼각 순환매입>을 통해 그룹 부채비율을 188.64%로 낮춰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SK그룹 수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초 한화 관계자들을 소환해 1999년과 2000년 한화 3개 계열사의 <삼각 순환매입> 등 분식회계가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주식회사 한화는 한화석유화학 주식 24.43%를 매입했고, 한화석유화학은 한화유통 주식 62.82%를 사들였으며, 한화유통은 주식회사 한화 주식 10.37%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2002년 10월 고발한 대상은 (주)한화(대표 김승연)와 한화유통(대표 김정), 한화석유화학(대표 신수범) 등 3개 법인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Journal 2003/ 02/ 27>